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참고자료</b>	
	배포일시	즉시 배포
<b>담당 부서</b> 공공주택총괄과	<b>담당자</b> • 과장 이병훈, 사무관 이경민 • ☎ (044) 201-4514	
<b>보도일시</b>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청년 눈높이 맞춘 온라인 전용 행복주택 홍보영상 제작

### 집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는 나라.. “아직 소문 안 났을 때 빨리 신청해” (feat. 김수미)

□ 국토부(장관 김현미)는 ‘집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는 나라’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(‘17.11), 신혼부부·청년주거지원방안(‘18.7)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.

○ 특히, 계속되는 취업난을 겪으면서 대학가 인근의 반지하, 고시원 등을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확대\* 등을 추진 중이다.

\* (행복주택 입주자모집 물량) ‘15년 1천호, ‘16년 1만호, ‘17년 1.4만호

○ 이와 함께,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, 대학가 포스터 게재, 라이브 방송,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, 정책 수혜대상인 청년들이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.

□ 이에 따라, 8월 30일(목)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앞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형 온라인 전용 홍보영상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.

○ 50초 분량의 이 영상은 한 청년이 습기, 냄새, 곰팡이 등 장마철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고충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체험형 영상이다.

- 국토부 공식 온라인 채널은 물론 유튜브, 페이스북, 청년 커뮤니티 등에 게재하여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정책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○ 특히, 이 영상에는 최근 ‘수미네 반찬’으로 타향살이 하는 청년들에게 고향의 냄새, 엄마 밥상을 떠올리게 하는 **탤런트 김수미** 씨가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는 취지에 공감, **재능기부\***로 출연하였다.

\* 저예산으로 제작된 이 홍보영상의 출연료로 김수미 씨에게 3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, 이를 청년들에게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하여 훈훈한 소식을 전함

- 탤런트 김수미 씨는 앞서 반지하에 살면서 장마철의 고충을 토로하는 청년의 옆집 아주머니로 출연하여 ‘나라에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니 소문나기 전에 얼른 신청해’라는 코멘트를 통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홍보영상을 본 우리 청년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”면서, “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일하고 공부하는 나라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면서 청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체험형 홍보활동을 펼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총괄과 이경민 사무관(☎ 044-201-45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‘집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는 나라’ 홍보영상

